

‘물의 도시’ 대구서 물산업 해법 찾는다… 세계 9개국 참가

오늘부터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도시간 물 관련 정책·기술 등 공유 라운드 테이블 토론 개최 예정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이 23일부터 26일까지 대구엑스코에서 개최돼 물 도시 19개국 8개 기관이 참가하는 세계물도시포럼, 국제물산업컨퍼런스, 세계물클러스터리더스포럼 등의 국제행사가 열린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한 ‘세계물도시포럼(Word Water Cities Forum, WWCF)’은 물 선진도시와 개도국 도시 간 물 관련 정책 및 기술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대구시 주도의 세계 도시 간 물 문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편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2 홍보포스터

란드 미켈리, 일본 고베,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 라오스 비엔티엔, 태국 방콕 등 9개국 9개 도시와 세계물 위원회(WWC), 국제수자원학회(IWRA) 2개 기관이 참여해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물산업컨퍼런스(International Water Industry Conference, IWIC)’는 기존의 선진기술 발표인 테

크니컬 세션에 비즈니스 부문을 확대해 해외 기관들의 물산업 정책 발표, 국내·외 기업들의 우수기술 발표,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 물기술 인증 워크숍 등 12개 세션 89개 주제를 발표(포스터세션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과 한국물기술인증원 등 물산업 지원 기관이 참여해 글로벌 ESG경영, NSF 국제인증 교육, 물기술 국내외 표준 및 인증 워크숍 등 물기업 재직자를 위한 실무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물클러스터 리더스포럼(WCLF)’은 세계 물클러스터 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와 운영 성과 및 지원프로그램 등 경험 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시회는 총 68개 사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며, 전시품목으로 수

돗물 생산 및 공급, 하·폐수 처리 및 방류, 초순수, 상·하수도 시설 엔지니어링, 산업용수 설비 및 서비스 등의 품목이 전시되고, 공공구매상담회, 테크인워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대구시 홍보관은 맑은물 하이웨이, 물산업육성 지원사업, 상수도사업본부의 스마트 관광관리 인프라 구축 등 대구시의 전반적인 물 관련 시책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양한 국제 행사 개최를 통해 대구는 명실상부 물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번 행

사를 통해 대구시의 물산업 육성전략과 맑은물 하이웨이 정책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의 도시 대구’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완도군

공공비축·시장격리곡 4천톤 매입

완도군에서는 2022년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곡을 지난 3일 청산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매입에 들어갔다. 이번 수매는 12월 16일 까지 진행되며, 2022년 산 공공비축미 2,891톤(72,275포/40kg), 2021년 산 시장격리곡 1,195톤 등 총 4,086톤 매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매입 물량은 33,838포(1,353톤)으로 올해 213% 증가했다.

군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수매 포대 지원, 수매 차익금 보전 등 시책 발굴·추진에 힘쓰고 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광양시 ‘제1회 기업인의 날’ 성료

광양시는 21일 ‘2022년 제1회 광양시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마동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 1층에서 개최했다.

기업인의 날은 2021년 12월 21일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확정돼 기업활동 촉진, 기업인 경영의욕 제고 및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11월 4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게 됐다.

/광양(전남)=김용학 기자 jjacecom@

사천시

친환경 농업인에 자재비 지원

사천시는 친환경 농업인에게 유기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2023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증진과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다.

/사천(경남)=이도식 기자

상주시

경북 구조구급기술대회 ‘대상’

상주시는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 재난안전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2022년 경북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조구급기술 경연대회에 출전하여 대상을 수상하였다.

김천시에 위치한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 이번대회에는 경상북도 시·군 재난안전네트워크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구명환 던지기 등 5개 종목에서 인명 구조구급기술 경연을 벌였다.

/상주(경북)=이상호 기자



환경부가 선정하는 ‘2022년 그린시티’ 지정 현판식 모습.

포항시, ‘그린시티’ 지정

경북·철강산업도시 ‘최초’

2년마다 환경부 지정… 올해 10회째 저탄소·친환경 전환 위한 탄소중립

포항시는 환경부가 선정하는 ‘2022년 그린시티(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로 지정돼 22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과 함께 박해자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 김창근 경북동부환경기술인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해 그린시티 선정을 함께 축 하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해 2년마다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그린시티’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으며, 포항은 경북도 및 철강산업도시 중 최초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전남女일자리 박람회서 310명 취업 연결

32개 기업서 현장면접 진행

전남도가 올해 마지막으로 연 여성 일자리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남도는 전날 나주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한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310여명을 구인 기업과 연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목포, 순천, 여수에

주요 평가분야는 탄소중립(기후변화 적응, 탄소흡수원, 무공해차 보급, 자원순환), 도시환경(수질 및 물순환, 대기질), 환경시책(주민 환경의식 제고, 대표 환경시책)으로 포항시는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아 현판, 트로피, 시상금, 담당자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의 성공적 이행, 살고 싶은 도시를 향한 그린도시 조성, 미래 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환경오염 감시망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탄소중립 그린도시, 환경 희망특별시 포항, 꿈꾸는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년 처음으로 예산 1조원을 넘긴 이후 코로나 19 장기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 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처음으로 1조 3천억 원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발전을 이끌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처럼 시 재정규모가 늘어나는 주요 요인은 국도비 확대를 위해 적극적

인 시책발굴과 경북도 및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는 등의 노력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전년대비 11%나 추가 확보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에 이어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시민모두가 누리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경제의 도약을 견인하는 미래산업 육성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김충섭 시장은 “민선8기 첫 예산안은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금리 추세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 취약 계층 복지지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했고, 우리시 미래먹거리 사업에도 지속 투자하여 미래 100년을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천(경북)=류희철 기자 rhc1369@

거창군, 군민 초청 군정 업무계획 보고회

역점 추진사업 등 설명

거창군은 21일부터 24일까지 군정 대회의실에서 각계각층의 군민 100여 명을 초청하여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군민초청 열린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구인모 군수의 주재로 개최하며 부군수, 국장, 기획예산 담당관을 비롯한 23개 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행정복지국을 시작으로, 23일 경제산업국, 24일 기획 예산담당관·지속기관·사업소 등으로 보고회를 진행한다.

보고회는 2022년 군정 주요성과 및 민선 8기 공약사업보고를 군민과 공유하고, 내년도에 거창군이 역점 추진하는 사업들과 신규 사업들에 대해 군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참석하지 못한 군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거창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군민들에게 생중계된다.

2023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 예산담당관이 2022년 군정 주요 성과 및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해 보고했으며, ▲생태·산림관광 100만명 시대 준비와 도약▲승강기산업의 제2도약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농촌 기반 마련 ▲정주인구증가를 위한 기반 조성의 분야별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민선 8기 6개 분야, 57개 공약사업을 보고했다. 특히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군의 노력과 50년 주민 숙원사업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선정 등은 누구나 살고 싶은 거창, 산림관광 100만 명 시대와 거창군 발전을 이끄는 눈에 띠는 큰 성과로 꼽았다.

/거창(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